

##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研究 (2)

李丙旭\*·金基旭·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關於南宋時期之醫學的研究(2)

李丙旭·金基旭·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本論文是以對脈學發展影響極大的西原脈學爲中心而研究了南宋時期醫學的特徵和意義。到現在關於宋金元代醫學的研究，只是集中在北宋和金元時代而對同時代南宋醫學的研究就不過於此。而且對南宋醫學的“易簡”，把他看作一個只是用北宋時期的累積知識而不必要深刻研究反省的方法，可是我們要認定南宋時期對“易簡”追從的傾向是爲了有效的克服險難的醫療現實。

尤其西原脈學以受陳無擇影響的崔嘉彥爲中心，把以前散漫而不易用于臨床的脈學理論，進行了有體系的整理而便于適合辨證施治。所以我們要認定他對這一方面的功勞，嚴用和也拿著自己的主意和學術體系把脈學和變證施治緊密的結合而應用。他對此的功勞，參考最近中國的研究然而進行研究報告。

關鍵詞：南宋醫學，易簡，永嘉學派

### 1. 緒 論

北宋시기에는 제왕이 의학에 관심이 많아 정부가 힘을 기울여 方書를 수집하여 대형 醫方書를 편찬하였고, 校正醫書局을 두어 의학경전을 교감 정리하였으며, 당시 발달된 인쇄술을 이용하여 의서를 출판 간행하였고, 의학교육에도 힘써 인재를 배양하여 의학이론을 탐구하는 기풍을 촉진시켜 후세 의학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南宋시기(1126~1279)는 남북방이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문화의 교류가 어려웠으므로 북방 金元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河間、易水學派의 의학 논쟁 동참할 수 없었고, 당시 철학계의 흐름인 朱熹의 義理之學、陳亮의 事功之學、陸九淵의 心學 중 의학계는 事功의 영향을 받아 '이간'을 숭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조는 주로 醫方、脈學、本草 方面에서 나타났다.

남송 의학계에 이러한 학풍의 開創者는 陳言으로 溫州에서 의학이론 연구와 임상에 종사하면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의학교육에 진력하고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三因極一病證方論』(이후 『삼인방』이라 간칭)을 저작하였다. 그는 『金匱要略』의 三因說을 계승하고 더욱 발달시켜 “醫事之要, 無出三因”<sup>110)</sup>、“儻識三因, 病無餘蘊”<sup>111)</sup>이라 하여 병인을 식별하는 주요 근거는 脈象이라 하였고, 病因、脈象을 강령으로 삼아 方劑學의 분류체계 수립과 남송시기 맥학방면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맥학방면에 있어서는 『脈訣』이 유행하여 이에 대한 주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陳言이 『脈訣』은 六朝시기 高陽生이 僞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脈經』의 24맥에서 浮沈遲數 4맥을 강령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여 이후 崔嘉彦을 중심으로한 西原脈派에 큰 영향을 끼쳤다.

崔嘉彦은 南宋시기 의학가로 廬山의 西原庵 옛터에 집을 짓고 살면서 『脈訣秘旨』를 저작하였다. 최씨는 七表、八裏、九道の 옛 분류법은 “文理甚繁, 後學未能解”<sup>112)</sup>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략화하여 “以浮沉遲數爲宗, 風氣冷熱主病”<sup>113)</sup>의 강령을 제시하였다. 그 학술적인 연원에 대해 최씨의 三傳弟子인 張道中이 “越人『難經』于六難專言浮沉, 九難專言遲數, 既以四脈爲重. 近世陳無擇諸人, 皆言浮沉遲數可統”<sup>114)</sup>이라 밝혔다. 따라서 崔氏는 浮、沉、遲、數 4맥을 선택하여 諸脈의 강령으로 삼았다. 그의 제자 劉開는 『劉三點脈訣』을 저작하고 四脈에 따른 主病을 임상실제에 보다 적합하게 하고 ‘太過’、‘不及’을 강조하였다<sup>115)</sup>. 유개의 제자인 嚴用和는 『濟生方』을 편찬하여 각종 맥상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비유하여 묘사하였고,

다른 제자인 朱永明은 맥학지식을 그의 제자인 張道中에게 전수하였다. 장도중이 찬한 『玄白子西原正派脈訣』(『西原脈訣』이라 간칭)에서 ‘西原’이라 명명하여 이들 맥학이 최가언에 연원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이후 명대 李言聞이 『四言舉要』라 개명하고 이시진의 『本草綱目』 뒤에 附刊하여 널리 유전하였다. 따라서 서원맥학도 전승을 통하여 맥학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상 남송시기 의학을 개괄하고 맥학이 학파를 형성하면서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발전 소멸되었는지를 최근 중국의 연구를 참조하여<sup>116)</sup>, 논자가 연구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제1장 崔嘉彦과 西原脈學

宋金元 시기의 脈學은 晉唐 맥학과 明清 맥학을 연결시켜주는 맥학사에 있어서 교량이 된다. 이당시 맥학의 발전은 崔嘉彦의 西原脈學이 중심이 되어 이룩하였다. 그러나 崔嘉彦은 西原脈學의 창시인이며 일찍이 ‘四脈爲綱’학설을 제창하였다는 것 이외에 최씨와 서원맥학과 관련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맥학 이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말하자면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대해 관련된 문헌과 사료를 기초로 그 근원을 소급하여, 西原脈學이 발전한 원류와 맥학에 대한 공헌을 탐색하기로 한다.

#### 제1절 崔嘉彦이 西原脈學을 창립

##### 1) 西原脈學의 창립

西原脈學은 南宋 崔嘉彦이 처음으로 만들었

110) 宋·陳言 著：『三因極一病證方論』「序文」，人民衛生出版社，1983年。

111) 上掲書：「序文」。

112) 崔嘉彦：『脈訣秘旨』明嘉靖戊午抄本。

113) 嚴世藝 외22人：『中國醫籍通考』卷1，上海中醫藥出版社，1990年 p.789. (『脈訣』崔嘉彦曰)

114) 張道中：『玄白子西原正派脈訣』，明抄本(見『脈訣秘旨』)。

115) 李經緯 외49名 編輯：『中國醫學通史』古代卷，人民衛生出版社，2000年，p.331.

116) 劉時覺 『永嘉醫派研究』中醫古籍出版社 2000年，張同君 「崔嘉彦西原脈學及其學術成就」中華醫史雜誌 1992年

다. '西原'은 당시 南康軍<sup>117)</sup> 廬山에 있는 庵子 이름으로 崔嘉彦이 은거한 곳이다. 이 때문에 崔氏의 제자가 그 맥학의 연원을 나타내기 위해 자칭 '西原正派' 맥학이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西原脈學'이라 간칭한다.

최가언은 남송시기 저명한 의학가로 그의 생애 관해서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최가언은 자가 子虛이고 成紀<sup>118)</sup> 사람이다. 대략 政和元年(1111년)에 태어났다. 崔氏는 “少慷慨有奇志, 壯歲遊地巴東三峽之間, 修神農老子術. 東下吳越, 以耕戰之策干故相趙忠簡公, 趙公是之. 會去相, 不果行. 君自是絕迹此山(廬山)”<sup>119)</sup>이라 하였다. 그는 廬山の 西原庵 옛터에 집을 짓고 살면서 밭을 갈고 약물을 재배하고 자급자족하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을 도왔다. 이 시기에 최씨는 정치에서 의학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렸고, 특히 맥학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

崔氏 이전에 세상에 전해진 맥서는 주로 『脈經』과 『脈訣』이었다. 『脈經』은 西晉 王叔和가 撰하였고 최초의 脈學經典이다. 여기에서 맥상을 浮、扎、洪、滑、數、促、弦、緊、沉、伏、革、實、微、澀、細、軟、弱、虛、散、緩、遲、結、代、動 등 24종으로 나열하였다. 이 이후 六朝시기 高陽生이 편찬한 『脈訣』<sup>120)</sup>에서는 歌括體로 『脈經』의 수많은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발휘시켰다. 『맥결』의 뚜렷한 업적은 24맥을 浮、扎、滑、實、弦、緊、洪의 七表、微、沉、緩、澀、遲、伏、濡、弱의 八裡、長、短、虛、促、結、代、牢、動、細의 九道脈으로 분류한 데에 있다. 이는 『맥경』에서 24맥을 평형으로 배열한 것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한 것으로 임상역사가 접근하기에 용이하기 때

문에 환영을 받았다.

맥학의 발전은 송대에 이르러 고양생 『맥결』이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점유하였다. 비록 『맥결』이 비난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의가가 그 내용을 응용하고 연구하였다. 이 때문에 宋金元 시기에도 적잖은 의가가 『맥결』을 주석하였는데, 당장 알려진 바로는 다섯 의가가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가언은 4맥을 강령으로 삼은 맥학 체계를 창립하였다.

먼저 당시 의학발전에서 보면 전인의 학설을 전해 받아 밝히기만 하고 자기의 새로운 설은 내세우지 않는 ‘述而不作’ 전통을 타파하는 풍조가 이미 행해져, 의학 저작이 간략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동시에 七表、八裏、九道는 단계와 깊이가 결핍된 맥의 분류법으로 임상진단의 필요에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맥학에 대해 새로운 총결과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 고대문화의 배경에서 보면 최씨가 창립한 ‘四脈爲綱’의 맥학체계는 중국고대 정통 儒學에서 ‘由博返約’한 것과는 불가분하다.

## 2) 四脈爲綱

崔氏는 七表、八裏、九道の 옛 분류법은 “文理甚繁, 後學未能解”<sup>121)</sup>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략화하여 요점을 간명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령은 “以浮沉遲數爲宗, 風氣冷熱主病”이다. 그 학술적인 연원을 崔氏의 三傳弟子 張道中이 “越人難經于六難專言浮沉, 九難專言遲數, 既以四脈爲重. 近世陳無擇諸人, 皆言浮沉遲數可統”<sup>122)</sup>이라 밝혔다. 따라서 崔氏는 浮、沉、遲、數 4맥을 선택하여 諸脈의 강령으로 삼았다.

‘四脈爲綱’은 崔嘉彦의 유일한 脈學 저작인 『脈訣秘旨』<sup>123)</sup>에 실려 있다. 이 책은 刻印되지

117) 오늘날 江西 星子

118) 오늘날 甘肅 天水

119) 朱熹 : 『朱文公文集』 卷79『四部叢刊本』, 上海商務印書館, 1929年, p.1441.

120) 王叔和 撰이라 托名되어 있음

121) 崔嘉彦 : 『脈訣秘旨』, 明嘉靖戊午抄本.

122) 張道中 : 『玄白子西原正派脈訣』, 明抄本(見『脈訣秘旨』).

못하고 단지 소수의 抄本만이 傳世한다. 『서문』과 책 속의 내용을 종합하면 ‘四脈爲綱’은 주로 ‘統證’과 ‘統脈’ 두 방면을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統證

統證은 浮、沉、遲、數 4맥을 綱으로 삼고 기타 맥상을 결합하여 病因과 病位를 분석함으로써 변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四脈의 有力、無力으로 主病을 결정한다. 혹은 四脈을 經으로 삼고 有力、無力을 緯로 삼아 病因과 病位를 판별한다고 하였다. 이 단계는 먼저 병증의 기본 속성(陰陽、表裏、寒熱) 및 가장 흔히 나타나는 病因(風、氣、冷、熱)과 病證(虛、積、痛、瘡)을 파악하는 것으로, 실제상으로는 후세에서 광범하게 운용한 八綱辨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맥으로 변증하기에 편리하다.

두 번째 단계는 4맥과 三焦의 부위를 서로 연계시켜 主病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寸關尺의 三部를 經으로 삼고, 浮沉遲數의 4맥、風氣冷熱의 四因을 緯로 삼아 인체 上中下 三焦의 病證을 진찰한다. 이 단계는 寸關尺 三部脈象의 강령 및 그 主症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는 4맥과 五臟을 서로 연계시킨 것으로 寸口의 五臟 부위에 4맥이 나타날 때 주관하는 병증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心部浮, 主心虛. 觸爭易驚, 神不守舍, 舌強不能語, 語言錯謬”<sup>124)</sup>과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4맥을 綱으로 삼아 風、氣、冷、熱을 확정하고, 三焦、五臟 주병을 구하는 진찰방법이 바로 ‘以四脈爲宗, 以總萬病’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2) 統脈

統脈은 浮沉遲數 4맥을 綱으로 삼아, 七表八裏 형상과 비슷한 기타 각 맥을 귀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浮脈: 按之不足, 舉之有餘, 輕手乃得. 芤: 浮之無力. 洪: 浮之有力. 實: 浮而長大”<sup>125)</sup>와 같은 것이다.

기타 3맥의 統屬 관계는 “沉脈統微、伏、弱. 遲脈統緩、澀、濡. 數脈統緊、弦、滑”이다. 4맥으로 12맥을 총괄하는 이러한 맥의 분류법은 요점을 간명하게 제시하여 처음으로 맥상 사이의 내재적인 연계를 드러내었다. 각 맥의 主從 관계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각맥의 요점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따라서 임상 의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상이 崔嘉彦의 ‘四脈爲綱’ 학설이다. 상당히 간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완전한 새로운 시도였다. 맥에 의해 변증하고 증을 살펴 원인을 찾는 것에 착안하여, 辨脈과 辨證 방면에 있어서 지도적인 작용을 유효하게 발휘하였다. 이 학설은 脈學理論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질병을 진단하는데 허다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여, 脈形 분석에 편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번잡함을 버리고 간략화하여 임상에서 천변만화하는 증상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학설은 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이를 따르는 의가들이 매우 많았으며, 최종적으로는 崔嘉彦이 개발한 西原脈學이 형성되었다.

제2절 西原脈學의 전승과 발전

崔嘉彦이 창립한 ‘四脈爲綱’ 학설은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부단히 발전시켰다. 나타나는 자료에 의하면 崔嘉彦의 직계 弟子는 적어도 4대에 이르며,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123) 張同君 : 『崔嘉彦及其脈學著作的研究』, 浙江中醫雜誌, 1990 8期.

124) 上揭書.

125) 上揭書.

崔嘉彦 → 劉開 → 朱宗陽 → 張道中 → 閔一無  
 嚴用和

1) 劉開

劉開은 崔嘉彦의 첫 번째 傳人으로서 崔氏脈學을 계승하고 전파한 중요한 인물이다. 劉氏의 字는 立之이고 號는 復眞이며, 南康 廬山人이다. 崔氏가 廬山の 西原庵에 은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劉開가 崔氏의 門下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崔氏의 學問은 “口傳心授, 竟爲復眞劉先生開發而行之”<sup>126)</sup>하였다. 劉開은 崔氏의 學問을 전수 받은 후에 崔氏의 脈學을 전파,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1) 西原脈學에 대한 劉開의 공헌

유개는 西原脈學의 계승자로서 맥학발전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하였다.

첫째, 유개는 崔氏의 맥학사상을 완전히 계승하였다. 崔氏脈學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맥을 귀납시켜 더욱 조리화하였고 崔氏의 ‘四總脈’을 ‘浮數外因’과 ‘沉遲內因’으로 나누었다. 이는 這不僅突出了崔氏脈學‘四脈爲綱’인 崔氏脈學의 思想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脈象을 새롭게 조합하기도 하였다. 초학자가 각종 다양한 脈象을 파악하기에 편하게 하였고 또한 맥에 따라 변증하는 기초를 닦았다.

둘째, 劉開은 崔氏脈學을 전파함과 동시에 崔氏脈學을 보충하였다. 이는 주로 ‘四時相傳脈’과 ‘太過不及脈’에서 구현하였다. ‘四時相傳脈’은 心、肝、脾、肺、腎、命門의 순서에 따라 4맥의 主病을 열거하였다. 그의 스승인 崔嘉彦과 다른 점은 劉開은 單脈 主病만을 열거하지 않고, 浮數、浮遲、沉數、沉遲의 차서에 따라

126) 『中國醫籍通考』：前掲書, p.799. “『玄白子西原正派脈訣』自序曰”

脈位와 脈速이 다른 두 개의 脈象을 결합시켜 主病을 배열하여 기술하였다. ‘太過不及脈’은 劉開가 崔氏脈學을 진일보 발전시킨 것이다.

셋째, 이밖에 劉開은 수많은 歌訣도 편찬하여 崔氏脈學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脈有浮沉遲數, 病有風勞氣冷. 證有虛實寒熱, 治有汗吐下補.”<sup>127)</sup> 이러한 脈歌는 맥을 배우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것이며 崔氏脈學을 전파시키는데 유익하였다. 동시에 西原脈學을 전한 張道中에게 영향을 끼쳐 歌括體를 채용하여 西原脈學을 보급하게 되었다.

劉開은 崔氏脈學의 첫 번째 傳人으로서, 그의 학술적인 견해는 『脈訣理玄秘要』에서 천발하였다<sup>128)</sup>. 劉開의 『脈訣』은 崔嘉彦의 『脈訣秘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後世에서는 두 책을 합하여 崔劉 『四脈玄文』 혹은 『崔劉脈訣』이라 한다.

2) 嚴用和

劉開에게 전수 받은 제자가 매우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南宋 후기에 “兩山南北名醫之流, 悉自劉氏”<sup>129)</sup>라 하였다.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명성을 떨친 사람은 『濟生方』의 작자인 嚴用和이다. 劉、嚴 두 사람은 의학으로 유명하여 “諸公貴人, 盡禮請延以上客, 四方莫敢雁行, 望塵靡馳, 蓋劉、嚴是也”<sup>130)</sup>라 하였다. 응용화는 劉開의 『脈訣理玄秘要』를 위해 圖說을 찬하였다<sup>131)</sup>. 이밖에 嚴用和이撰한 『脈法捷要』가 있는데, 考證에 의하면 이것도 嚴用和이撰한 것이다.

(1) 脈學에 있어서 嚴用和의 업적

127) 劉開：『劉三点脈訣』. 木刻本. 見『醫要集覽』.

128) 『劉三点脈訣』이라고도 함

129) 『玄白子西原正派脈訣』：前掲書.

130) 嚴用和：『重訂嚴氏濟生方』. 『江萬序』, 內部發行本, 1979年.

131) 岡西爲人：『宋以前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年, pp.99~200, p.196.

嚴氏의 『脈法捷要』<sup>132)</sup>는 4맥을 중주로 삼는 崔、劉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였고 또한 발전시켰다. 浮沉遲數 4맥과 그 주병를 기술한 후에 치법을 증가시켰다. 浮는 ‘宜發散’하고, 沉은 ‘宜疏利’하고, 遲는 ‘宜溫中’하고, 數은 ‘宜汗解’한다고 하였다. 이는 4맥으로 統脈、統證한 기초 위에 또한 치료와 긴밀하게 서로 연계시켜 임상실용에 더욱 적합하게 하였다. 脈象의 묘사에 있어서 嚴氏는 崔、劉에 비해 더욱 진일 보시켰다. 예를 들면 “浮如水上之漚，出乎水而離乎水”、“微如蜘蛛之度嫩絲，按之無力而動搖”、“澀如病蠶之欲，按之節節然”、“遲如無力之走路，一步趕上一步”<sup>133)</sup> 등과 같이 임상에서 맥을 판별하는데 유리하다. 六臟의 病脈을 소개할 때 嚴氏는 단지 浮洪、沉細 두 가지 정황만 논하고 遲、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四脈爲綱’ 학설에 대한 하나의 변혁으로 볼 수 있다.

### 3) 朱宗陽

嚴用和와 동렬인 劉開의 문하생이 朱宗陽이다. 주중양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어 단지 그의 제자 張道中의 『西原脈訣』 「序文」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吾師宗陽朱練師脈(永)明，最爲得傳者”<sup>134)</sup>라 하였다. 또한 장도중의 「脈象綱紀圖」題識에서 “我祖師崔君，實以是說授之復眞劉先生，而傳之宗陽練師”<sup>135)</sup>라 하였다. 大德 辛丑(1301年)에 朱宗陽은 崔劉의 『四脈玄文』을 제자인 張道中에게 전수하였다. 주중양 개인으로는 어떠한 脈學著作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崔氏脈學을 계승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 4) 張道中

장도중은 최가언의 三傳弟子로 號는 玄白子

이고 淮南人이다. 그는 崔氏脈學을 계승, 발전시키고, 맥학지식을 전파, 보급시켰다. 『玄白子西原正派脈訣』, 『玄白子診脈八段錦』, 『玄白子相類脈訣』을 저서로 남겼다.

장도중은 그의 대표작인 『西原脈訣』(1330年)에서 최가언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崔氏脈學이 劉開에게 一傳하고, 朱宗陽에게 二傳하고, 張道中에게 三傳한 과정을 기재하였다. 이는 崔氏의 西原脈學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여 오늘날 서원맥학의 원류와 그 전승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였다. 장도중은 또한 처음으로 ‘西原正派’의 기치를 내걸어 崔氏脈學이 면면히 이어져 하나의 학파로 나타내었다.

장도중은 두 가지 방면에서 서원맥학을 발전시켰다. 하나의 방면은 장씨는 4맥을 강령으로 삼은 최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개괄하여 도표 즉 ‘脈象綱紀圖’를 만들고, 그 내용을 대략 개정하여 4맥이 12맥을 총괄하는 설을 빠짐없이 나타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張氏는 傷寒診治의 大綱을 제출하였다. “以浮沉遲數四脈，定風氣冷熱四病，以概百病”이라 한 최씨의 진맥 원칙이 단지 內傷雜病에만 적용가능하며 “若卒診傷寒外感之疾，則有不可通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취하여 “浮則在表，沉則爲里，數則在府，遲則在臟”<sup>136)</sup>이라는 상한맥진의 大綱을 제시하고 “與祖訣并用”<sup>137)</sup>함으로써 ‘四脈爲宗’ 학설을 발전시키고, 西原脈學을 풍부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의 방면은 장도중은 서원맥학 사상을 자신의 저작 속에 융합시켜 四言歌括의 형식을 채용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 그는 4맥으로 諸脈을 총괄하는 것과 諸證을 총괄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132) 『脈法撮要』이라 한 곳도 있음

133) 嚴三点：『脈法捷要』，明抄本(見『脈訣秘旨』)

134) 『玄白子西原正派脈訣』 「序文」：前揭書。

135) 上揭書。

136) 成無已：『注解傷寒論』 「辨脈法」，人民衛生出版社，1994年，p.7.

137) 張道中：『玄白子診脈八段錦』，明抄本(見『脈訣秘旨』)。

흔히 나타나는 맥이 동반하는 병증과 흔히 나타나는 병이 동반하는 맥상 등도 4言體로 천술하여 서원맥학 이론과 임상 실체를 결합시켰다. 이밖에 장도중은 비슷한 맥을 분석한 선례를 남겨 李時珍의 『瀕湖脈學』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장도중 이후 이를 계승한 사람은 闕一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민일무의 저작으로는 단지 『四太過不及脈訣』만이 있다. 이 책은 『劉三點脈訣』을 초록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견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宋元 시기의 西原脈學은 남송 특유의 참신한 맥학 유파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王叔和)脈訣』의 주석과 前人들의 맥학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맥학 이론을 새로 만드는 것에 노력하고 아울러 임상 실제와 밀접하게 서로 연계시켰다. 4맥을 강령으로 삼아 만병을 총괄하는 맥학 이론을 구축하여 임상에서 辨證、辨脈의 필요에 부응시켰다. 서원맥학의 특징은 통속적이고, 간명하고, 실용적이다. 이는 서원맥학은 임상실천의 기초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며, 당시와 후세 의가들에게 빠르게 인정을 받았고, 아울러 明清脈學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 제3절 西原脈學의 유전과 영향

세상에 전해진 西原脈學의 저작은 적어도 6종 정도로 이들이 元代脈學 및 明清脈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清代 이후 학술계에서는 西原脈學의 저작연구에 대한 필요한 문헌적인 고증이 결핍되었고, 동시에 관련된 사료를 깊이 발굴하지 못하였다.

서원맥학이 최초로 유전된 것은 江西의 廬山 부근이었다. 崔嘉彦의 첫 번째 傳人인 劉開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游于先生之門者甚衆”<sup>138)</sup>하였고, 南宋 말에 이르러 “兩山

南北名醫之流, 悉自劉氏”<sup>139)</sup>라 하였다. 南宋 말에 서원맥학은 이미 스승과 제자의 전수를 통하여 江西 廬山의 南北에 널리 유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元代에 이후에 들어서도 서원맥학은 더욱 유전되어 의가들에게 중시되었다. 元代 江西의 저명한 의가인 杜本(號清碧)은 맥을 논할 때 “浮而有力爲風, 無力爲虛. 浮而有力均積, 無力爲氣. 遲而有力爲痛, 無力爲冷. 數而有力爲熱, 無力爲瘡——各于其部見之”<sup>140)</sup>라 하였다. 이러한 진단법은 바로 崔氏脈學에서 기원하였음이 분명하다. 明代 安徽의 의학가 吳崑은 『脈語』에서 杜本の 설을 매우 추앙하여 杜氏의 말을 인용한 후에 “此得診家之領要也!”<sup>141)</sup>라 칭찬하였다. 그러나 오곤은 杜氏의 설이 西原脈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元代 龍興路<sup>142)</sup>에서 유학교수를 한 戴起宗(字同父)의 『脈訣刊誤』(14世紀初)에서도 劉三點의 脈論을 직접 인용하여 “三點劉立之, 亦以浮沉遲數四字爲綱, 分別三部爲證, 比誠初學入門”<sup>143)</sup>라 하였다.

西原脈學은 제 3대 傳人인 張道中이 크게 발달한 이후 빠르게 강남에서 널리 유전되었다. 張氏가 찬한 『서원맥결』은 崔劉의 『四脈玄文』에 날개가 되어 서원맥학을 전파시키는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元代 저명한 학자인 오징이 장도중의 『古今通變仁壽方』서문을 쓸 때 장씨 맥학의 연원이 “淮南張道中學脈法子朱鍊師永明. 朱之師劉君, 名開. 劉之師崔君, 名嘉彦”<sup>144)</sup>이라 하여 서원맥학의 世系가 이미 세인들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末 또

138) 佚名氏: 『方脈學要』, 黃魯曾木刻本.

139) 『玄白子西原正派脈訣』: 前揭書.

140) 吳崑 著·郭君雙 主編: 『脈語』, 「有力無力」,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188.

141) 上揭書: 「有力無力」, p.188.

142) 오늘날江西 南昌

143) 戴同父: 『脈訣刊誤』卷下, 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p.7.

144) 吳澄: 『臨川吳文定公文集』, 轉引自『醫籍考』, 卷5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p.689.

다른 저명한 학자인 陶宗儀는 『輟耕錄』에서 西原脈學의 학술적인 主旨와 전송관계를 전문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여기에서 “持脈之道, 療病之方, 其間玄妙, 具在『四脈玄文』及『西原脈訣』等書”<sup>145)</sup>라 언급하였다. 陶宗儀도 일찍이 崔、劉의 『四脈文』과 張道중의 『서원맥결』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陶氏는 또한 “今往往有得其法者, 學者其求諸?”<sup>146)</sup>라 하여 西原脈學의 영향이 날로 널리 퍼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명대는 서원맥학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였다. 崔嘉彦의 『脈訣秘旨』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맥결비지』의 抄本(1558年)은 여전히 있었고, 日本에서도 명대 초본인 『맥결비지』<sup>147)</sup>가 있었다. 이 두 종의 초본을 『맥결비지』라 명명하였는데, 실제상으로는 여러 종의 맥서를 합친 초본이다. 그 중에 서원맥학의 저작에 속하는 것으로는 張道中의 『西原脈訣』、『診脈八段錦』、『相類脈訣』、嚴三点的 『脈法捷(撮)要』, 閱一無의 『太過不及脈』이 있다. 서원맥학의 저작이 명대에 초본으로 전해진 것이 있고, 또한 이 학파 저작의 合抄本<sup>148)</sup>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劉開의 저작이 抄本人 『맥결비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명대에 단독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書志의 기재<sup>149)</sup>에 따르면 明·嘉靖丁未年(1547)에 조선에서 『脈訣理玄秘要』<sup>150)</sup>을 간행하였고, 이 본이 나중에 日本으로 유전되었다<sup>151)</sup>. 중국에서는 명대에 간행한 『醫要集覽』에서 『劉三点脈訣』이 실려있다. 고증에 의하면 이상 두 책은 사실 같은 책이면서 이름이

다르다. 이밖에 또한 『西原正派復眞子劉先生脈格』等 여러 종의 청대 초본이 있어<sup>152)</sup> 劉開의 저작이 일찍이 세상에 유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日本 丹波元簡의 『脈學輯要』에 “劉復眞”脈論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이는 『脈訣理玄秘要』에서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丹波는 여러 곳에서 嚴三点的 脈論을 인용하여 서원맥학의 저작이 日本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서원맥학 유포 가운데 저작이 가장 풍부한 것이 張道中이다. 그러나 간행된 장씨의 맥서에는 張道중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 없다. 明·洪武 21年(1388)에 劉純이 편찬한 『醫經小學』에 張道중의 두 가지 맥서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張道중 『서원맥결』의 四言歌括 부분을 劉三点 『方脈學要』라 개칭하였고, 또한 張道중의 『相類脈訣』 全文을 인용하여 실었지만 작자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았다<sup>153)</sup>. 뿐만 아니라 明·嘉靖 癸未年(1523)에 汪棊가 增補 『脈訣刊誤』을 증보할 때에도 張道중의 『診脈八段錦』을 집어넣었으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개칭하였다<sup>154)</sup>.

명청시기 책장사들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항상 명의 이름을 탁명하여 의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문에 張道中의 『西原脈訣』이 劉開의 『方脈學要』로 탁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崔嘉彦의 『崔眞人脈訣』<sup>155)</sup>、李杲의 『東垣脈訣』<sup>156)</sup>과 劉完素의 『脈訣』<sup>157)</sup>로 탁명되었다. 그 가운데 『최진인맥결』이 영향이 가장 컸다. 이 책은 明初에 간행된 『東垣十書』에 처음으로 나타나

145) 陶宗儀 : 『輟耕錄』 卷29『叢書集成』本, 商務印書館, 1935年, p.271.

146) 上掲書 : p.271.

147) 明 초본은 『幼幼新書』뒤에 덧붙여짐

148) 단지 劉開의 『脈訣理玄秘要』가 빠져 있음

149) 森立之 : 『經籍訪古志·補遺』, 木刻本.

150) 嚴用和의 圖說이 붙은 것

151) 日本 武田科學振興財團 : 『杏雨書屋藏書目錄』, 臨川書店, 1976年, p.841.

152) 劉開 : 『西原正報復眞子劉先生脈法』, 清抄本.

153) 劉純 : 『醫經小學』卷2『珍本醫書集成』本, 1936年, pp.26~34.

154) 薛己 : 『脈訣刊誤·附錄』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pp.8~10.

155) 張同君 : 『崔眞人脈訣』辨偽, 中醫雜誌 1990, 10期.

156) 李東垣 : 『東垣脈訣』, 清抄本.

157) 『宋以前醫籍考』 : 前掲書.



며 이른바 ‘東垣評注’가 있다. 나중에 또한 『醫統正脈全書』, 『壽養叢書』 등 明代 叢書에 전재되었다. 또한 清代에 이르러 四庫館의 관리가 斷章取義하여 함부로 최가언이 『최진인맥결』을 찬하였다고<sup>158)</sup> 한 이후부터 諸家들의 書志에서 분분하게 부화뇌동하여<sup>159)</sup>, 진정한 작자인 장도중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최진인맥결』은 明初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나중에 明·李言聞의 침삭을 거쳐 이름을 『四言舉要』로 바꾸었다<sup>160)</sup>. 이 책은 나중에 그의 아들 李時珍의 『瀕湖脈學』속에 덧붙여져 간행되었고 일세를 풍미하여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다. 이시진은 『빈호맥학』을 저작할 때 서원맥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약간의 맥상 뒤에 ‘相類詩’를 찬하여 비슷한 맥을 판별한 것이 장도중의 『상류맥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明末清初 李中梓의 『醫宗必讀·新著四言脈訣』<sup>161)</sup>, 清初 潘輯의 『醫燈續焰』<sup>162)</sup> 등 역시 『사언거요』에 근거하지 않음이 없었고 다시 수정하거나 주석하였다. 청대 太醫 王道純도 『사언거요』를 『本草品匯精要續集』에 편집해 넣었다<sup>163)</sup>. 기타 『사언거요』를 모방하여 파생된 맥학 입문서가 실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사언거요』가 유행한 것은 서원맥학이 명청시기 맥진에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한다.

청대에는 『빈호맥학』이 명대 이전의 맥학 입문서를 거의 대체하였기 때문에, 서원맥학 저작의 유전도 따라서 점차 소멸되었다. 서원맥

학이 청대에 있어서 영향은 실제상으로 주로 후속성 저작인 『사언거요』과 『빈호맥학』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서원맥학에서 비롯된 ‘四脈爲綱’은 학술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가언 이후 元末에 浮、沉、遲、數、滑、澀의 6맥을 강령으로 삼은 滑壽의 학설<sup>164)</sup>이 출현하였고, 명청시기에 이어서 8맥 혹은 10맥을 강령으로 삼은 설 등이 출현하였지만 그 본원을 소급하면 脈象을 분류한 원류는 남송시기의 최가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서원맥학은 맥학 이론의 발전사에 있어서 전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였고 볼 수 있다.

본문은 최가언의 서원맥학 및 학술적인 업적을 탐색하여 서원맥학이 유전된 世系 및 그 학술사상이 맥학 이론 발전에 대한 작용을 나타내었다. 최가언 맥학의 뚜렷한 업적은 『脈訣』七表八裏의 옛 틀을 타파하고 4맥을 강령으로 삼아 辨脈辨證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한 데에 있다. 그 특징은 통속적이고, 간명하고, 실용적이다. 서원맥학은 맥학 이론의 탐색을 촉진시켜 맥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 제2장 嚴用和

嚴用和(1199~1267年)는 자가 子禮이고 江西 南康人<sup>165)</sup>으로 南宋의 저명한 의가이다. 嚴氏は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해 經、史、子、集、詩、詞、歌、賦를 섭렵하지 않음이 없었고, 천부적인 재질로 보아서는 벼슬길로 나갈 수 있었으나 집안 사람들이 병마에 고통을 당하고 庸醫의 폐해를 목격하고 의학에 뜻을 두고 벼슬길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12세 때 그곳의 명의를인 劉開를 스승으로 모시고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유개는 江西 南康 人

158) 紀均 等 : 『四庫全書總目』 卷105, 中華書局, 1983年, p.883.

159) 清·周中學의 『鄭堂讀書記』, 日·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 및 근현대 醫書 目錄書、史學書에서 모두 이 말에 따르고 있다.

160) 李言聞 : 『四言舉要』影印本(『瀕湖脈學』에 나타남), 北京, 中國書店, 1986年.

161) 李中梓 : 『醫宗必讀』, 『新著四言脈訣』 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162) 潘輯 : 『醫燈續焰』校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63) 王道純 : 『本草品匯精要續集』 附刻于『本草品匯精要』後, 商務印書館, 1957年.

164) 滑壽 : 『診家樞要』 見『明醫指掌』卷1, 唐鍾飛木刻本.

165) 일설에는 江西 廬山人

람으로 불교와 도학을 익혀 항상 廬山에서 지냈는데, 한번은 여산에서 異人을 만나 太素脈을 받아 행세하여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업용화는 “心思挺出, 頓悟捷得”<sup>166)</sup>하고 게다가 유개가 “獨荷子進, 面命心傳”<sup>167)</sup>함으로서 17세 때 명성을 크게 떨쳐 “四方士夫, 曾不以少年淺學, 而邀問者踵至”<sup>168)</sup>하게 되었다. 劉、嚴은 스승과 제자로써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뛰어나고 의술이 깊어 한 때는 廬阜 일대가 “每數千里赴人急, 諸公貴人, 盡請延以上客, 四方曾莫聚雁行, 望塵靡馳”<sup>169)</sup>하였다.

엄씨는 『內經』, 『傷寒論』등 경전에 대해 계통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발휘하였다. 이는 『濟生方』과 『濟生續方』곳곳에 나타난다. 엄씨의 학문적인 태도는 실천, 실제, 실효를 중시하고 동시에 전인을 존중하였다. 엄씨의 주된 학술관점은 장부변증을 중시하고 脈因證治를 상세히 연구하여 ‘補脾不如補腎’ 이론을 제시하였고, 氣道의 通順을 강조하여 치병에 調氣를 잘하였다. 方劑의 구성과 방약의 응용에 있어서 簡便廉驗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범하게 수집하여 실용에 적합하게 노력하였다. 『제생방』과 『제생속방』은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제1절 學問의인 態度

#### 1) 옛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

엄씨는 전인 귀중한 경험을 잘 수용하여 계승하면서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생방』에서 보면 그는 주로 『내경』, 『난경』, 『상한론』, 『금궤요략』, 『제병원후론』, 『천금방』 등의 영향을 받았고, 방제의 선택과 조합 방면은 王叔和, 龐安

常, 朱肱 등 제가의 설을 널리 채용하였는데 특히 송대의 의적인 『화제국방』, 『삼인방』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 또한 崔丞相의 灸勞法<sup>170)</sup>을 수재하고 보충하고, 稽大夫가 瘡瘍을 치료한 경험을 수재하였다<sup>171)</sup>. 당시에 민간에서 유전하고 유효한 單驗方도 널리 수집하였다. 때문에 그는 제가의 장점을 널리 수집하여 문호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는 「自序」에서 “概念世變有古今之殊, 風土有燥濕之異, 故人稟亦有厚薄之不齊”<sup>172)</sup>하기 때문에 古方으로 今病을 치료함에 因時, 因地, 因人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 2) 실천을 중시하고 실체를 강구함

嚴氏는 “師傳濟生之實意”<sup>173)</sup>에 바탕하여 전인의 경험과 이론을 임상실천과 결합시켜 30여 년 동안 관찰하고 체험한 것으로 『濟生方』을 만들었다. 또한 15년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제생방』을 더욱 완비시키기 위해 다시 『濟生續方』을 저작하였다. 예를 들면 喘病의 논치에서 『제생방』에는 『내경』의 학설에 바탕하여 ‘華蓋散’<sup>174)</sup>, ‘葶藶散’<sup>175)</sup>, ‘二黃圓’<sup>176)</sup>, ‘杏參飲’<sup>177)</sup>, ‘四磨湯’<sup>178)</sup> 등 각종 원인으로 발병하는 급성 천증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처방을 기

170) 嚴用和 : 『濟生方』, 「崔氏灸穴」, 『中醫方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年, pp.489~491.

取穴、取艾、用火의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아울러 그림을 그려 명시하여 일목요연하게 함

171) 上揭書 : 『癰疽論治』, pp.503~504.

172) 上揭書 : 『序文』, p.459.

173) 上揭書 : 「自序」, p.459.

174) 上揭書 : 『哮喘論』, p.475. (杏仁、蘇子、麻黃、赤茯苓、橘紅、桑皮、甘草로 조성)

175) 上揭書 : 『哮喘論』, p.475. (葶藶、桔梗、瓜蒌子、升麻、薏仁、桑皮、葛根、甘草로 조성)

176) 上揭書 : 『哮喘論』, p.475. (雌黃、雄黃、糯米粥로 조성)

177) 上揭書 : 『哮喘論』, p.475. (人參、桑皮、橘紅、大腹皮、檳榔、白朮、訶子、半夏、桂心、杏仁、紫莞、甘草、紫蘇葉로 조성)

178) 上揭書 : 『哮喘論』, p.475. (人參、檳榔、沉香、天台烏藥로 조성)

166) 『中國醫籍通考』 : 前揭書, p.2312. “『嚴氏濟生方』 江萬序略曰”

167) 上揭書 : p.2311. “『嚴氏濟生方』 自序曰”

168) 上揭書 : p.2311. “『嚴氏濟生方』 自序曰”

169) 上揭書 : p.2312. “『嚴氏濟生方』 江萬序略曰”

록하였다. 그러나 久喘腎虛證에 대해 유효한 방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濟生續方』에서 “久咳不已，傳于五臟六腑，至于三焦，病之極也 …… 臨病之際，又當審訂”이라 하여, 腎虛久喘證에 대해 ‘人參胡挑湯’<sup>179)</sup>、‘杏仁煎’<sup>180)</sup> 등의 방을 보충하여 治喘의 理法方藥을 완비시켰다. 嚴氏가 실천과 실천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유효한 방제를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 3) 실질을 중시하고 玄學을 배제함

嚴氏가 처한 시대에는 玄學이 유행하였는데, 역사적인 조건과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당시 수많은 방서에는 모두 현학적인 내용이 많이 끼어들었다. 당시 官方藥局에서 主編한 『화제국방』에는 불합리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견해가 섞여 있는데 「治婦人諸疾」 아래 붙여진 產圖 및 咒禁諸法度들은 당시에 매우 성행하였다<sup>181)</sup>. 그러나 엄씨가 『제생방』과 『제생속방』을 편찬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엄용화가 실천을 중시한 의학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생각을 가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제2절 著作

### 1) 『濟生方』

『제생방』은 南宋·寶祐 元年(1253)에 완성되었다. 全書는 모두 10卷으로 균일하게 每卷마다 먼저 ‘論治’를 논술한 다음에는 ‘方藥’이 기재되어 있는데, 헤아려 보면 ‘論治’ 80편과 ‘方劑’ 433수가 있다. 엄씨의 원저는 명대 이후로 점점 흩어지고 분실되어 지금에는 원저를 살펴볼 수 없다. 『제생방』의 판본은 『四庫全書總目提要輯本』、『朝鮮醫方類聚本』、『日本享保十九

年玉枝軒本』 등이 있다. 『永樂大典輯本』은 원저와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차이가 아주 크다. 겨우 醫論은 56篇이며 處方은 240餘首에 불과하며 또한 그 가운데는 『제생속방』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嚴氏의 原著에 관한 卷目과 每卷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가 없다.

『제생방』은 醫論과 方劑 두 가지 부분이 하나로 합쳐진 저작이며, 엄씨의 학술 사상과 임상 경험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全書는 「論治八十」에서 五臟、病因、病證、器官 등과 같은 몇 가지 대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매 편에는 『內經』 등의 서적을 인용한 醫論을 綱을 삼았고, 이에 관한 이론의 근원과 脈病 證治를 상세히 서술한 다음 다시 ‘治’를 위주로 구성한 처방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테면 「心小腸虛實論治」篇에는 심장의 허한, 실열을 논술하는 내용 가운데 소장의 허한, 실열에 관한 제증의 舌、脈、證의 표현에 있어, 心經虛寒을 다스리는 ‘補心丸’<sup>182)</sup>、心臟實熱을 다스리는 ‘導赤散’<sup>183)</sup>、小腸虛冷을 다스리는 ‘椒附丸’<sup>184)</sup>、小腸實熱을 다스리는 ‘赤茯苓丸’<sup>185)</sup>을 열거하여 덧붙이고 있다. 실제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밝혀 한치의 말도 군더더기가 없는 사실은 엄씨가 실재를 추구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볼 때 『제생방』 편차 배열의 실용적인 부분을 중시하였으니, 바로 엄씨가 「自序」에서 “疏其論治，掇爲條類 …… 可以備衛生家緩急之需”<sup>186)</sup>라 하였다.

### 2) 『濟生續方』

『제생속방』은 南宋·咸淳 3年(1267)에 완성되었고, 『제생방』과는 15년의 격차가 있다. 全

179) 人參、胡挑、生姜로 조성

180) 杏仁、胡桃肉、蜜

181) 許洪 編·李升召 編輯：『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海南出版社, 2002年, pp.281~310.

182) 『濟生方』 「心小腸虛實論治」：前揭書, p.509.

183) 上揭書：「心小腸虛實論治」, p.510.

184) 上揭書：「心小腸虛實論治」, p.510.

185) 上揭書：「心小腸虛實論治」, p.510.

186) 上揭書：「自序」, p.459.

책은 8권이 있으며, 編次는 기본적으로 『제생방』과 동일하다. 역시 먼저 이론을 논술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기재하고 있으며, 『제생속방』에 지나지 않아 ‘論治’라 할 수 없고 다만 ‘評治’라 부른다.全书는 모두 24개의 評治와 열거된 方劑는 90수로 구성되어 있다.

『제생속방』은 엄씨가 『제생방』을 완성하고 15년 뒤에 저작한 것으로 임상적인 실적을 통해 다시 모색하고 수집한 성과이다. 엄씨 자신은 “總而用之, 十有五年, 收效甚多. 然間有前書所未備, 而不可以盡索者, 因著續方 … … 醫者意也, 生意在天地間, 一息不再以間斷, 續此方所以續此意, 續此意所以續此生”<sup>187)</sup>이라 고 생각했다. 엄씨는 과학적인 진지한 태도에 입각하여 『제생방』에서 완비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를테면 ‘自汗論治’에는 陽虛自汗을 겨냥한 방제가 원래 없는데 임상에서 대부분의 自汗證은 氣虛陽弱이기 때문에 『제생속방』에 ‘芪附湯’을 두어 전문적으로 陽虛自汗을 치료한다. 이 처방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自汗證의 상용방이 되었다. 따라서 『제생속방』의 가치가 『제생방』에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두 책은 짝이진 구슬과 같이 앞뒤가 호응하여 떨어 수가 없다.

『濟生續方』의 판본은 『朝鮮醫方類聚本』, 『日本文政五年刻本』, 『浙江紹興裴氏抄本』 등이 있다.

### 제3절 학술 특징

嚴氏의 학술적인 특징은 『濟生方』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내용이 풍부하여 論이 있을 뿐 아니라 方도 있고, 병의 종류에 있어서 외감병과 내상잡병을 포함하여 외과, 부인과, 오관과 등의 여러 질환까지도 미쳤다. 그러나 중점을 둔 것은 잡병으로 嚴氏 스스로 “治傷寒有法, 治雜病有方, 雜病之方可以導其傳,

187) 『中國醫籍通考』: 前揭書, p.2313. “嚴氏濟生續方. 自序曰”

調理傷寒, 當按定法也”<sup>188)</sup>이라 하여 잡병을 극히 중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학술관점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면이 있다.

#### 1) 臟腑辨證을 중시하고 脈因證治를 상세히 추구함

『濟生方』의 입론은 臟腑學說을 기초로 삼아, 嘔吐、水腫、脹滿、咳嗽、五勞六極 등편 모두 장부의 생리공능에서 출발하여 그 常과 變을 밝히고 장부병변의 발생, 발전, 증후, 轉歸 및 치법 등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요점적으로 논술하여 일목요연하게 하였으며, 虛實寒熱 등 각종 증후의 유형을 나누어 처방을 입법하는 근거로 삼아 『肝膽虛實論治』篇에서 “夫肝者足厥陰之經, 位居東方, 屬乎甲乙木, 開竅于目, 候于左脇, 其政變動, 變發驚駭, 藏魂養筋者也, … … 診其脈浮大而數者, 皆實熱之候也. 脈來弦而長, 乃不病之脈. 脈來弦而澀, 或急而益勁如新張弓弦, 或脈至中外急急如循刀刃, 嘖嘖然如按琴瑟弦者, 此皆肝死矣. 治之之法, 當分虛實冷熱而調之, 以平爲期”<sup>189)</sup>라 하였다. 따라서 後人이 엄씨의 方論을 ‘微言精要, 信爲司命繩墨’<sup>190)</sup>이라 하였는데 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의 변증치료에 대해 脈、因、證、治 네 가지의 완전한 협조를 강조하여 “夫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理, 乃知受病之因, 得病之因, 乃識其證, 既識其證, 則可詳其所治”<sup>191)</sup>라 하였고, 수많은 질병에 모두 生脈、易治之脈、難治之脈、死脈 등 다르게 표현하여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그는 “諸失血之脈, 沈細者易治, 脈數浮大者難治”<sup>192)</sup>、 “心腹積聚, 其脈牢強急者生, 虛弱急者死”<sup>193)</sup>한다고 보았다. 맥학 관점 및 체험에 대해 엄씨가 체득한 것은 임상에서 증오

188) 『濟生方』 「傷寒論治大要」: 前揭書, p.468.

189) 上揭書: 『肝膽虛實論治』, p.509.

190) 上揭書: 『中淵博愛黨序』, p.462.

191) 上揭書: 『自序』, p.459.

192) 上揭書: 『失血論治』, p.493.

193) 上揭書: 『積聚論治』, p.497.

한 참고가치가 있다. 嚴氏가 脈象을 증시한 학술관점의 근원을 소급하면 그의 스승과 큰 관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의 스승 劉開는 脈學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맥학 전문 저작을 편찬하였는데 엄씨가 그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맥학 이론방면에 많은 천발이 있게 되었다.

2) 脾胃의 작용을 강조하여 '補脾不如補腎'의 학설을 제시함

비위는 기혈이 생화하는 근원으로 후천의 근본이다. 따라서 엄씨는 생리, 병리에서 있어서 비위의 작용을 매우 강조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비위를 보호하고 도왔다. 예를 들어 『嘔吐論治』편에서 “夫人受天地之中以生. 莫不以胃爲主. 蓋胃受水谷, 脾主運化, 生血生氣, 以充四體者也”<sup>194)</sup>라 하였다. 비위의 '沖和'를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손상되면 병이 된다고 여겨 용약할 때 주의하여 '不壞脾胃'할 것을 간절히 경계하였다. 특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엄씨가 비위의 '沖和'를 강조한 동시에 또한 腎의 작용도 증시한 것이다. '補眞圓'의 方義를 분석할 때에 “眞陽衰虛, 坎火不溫, 不能上蒸脾土, 沖和失布, 中州不運, 是致飲食不進, 胸膈痞塞, 或不食而脹滿, 或已食而不消, 大腑滯泄, 此皆眞火衰虛, 不能蒸蘊脾土而然. 古人云: 補腎不如補脾, 余謂: 補脾不若補腎, 腎氣若壯, 丹田火經土蒸脾土, 脾土溫和, 中焦自治, 膈開能食矣”<sup>195)</sup>라 하였다. 엄씨가 강조한 腎中眞火는 命門學說의 발전에 교량역할을 하였다. 엄씨가 脾胃를 증시하였기 때문에 『제생방』에서 처방 용약함에 있어서 溫補에 편중되었다. 그리고 『附子建中湯』<sup>196)</sup>、『芪附湯』<sup>197)</sup>、『朮附湯』<sup>198)</sup> 등과 같이 脾胃를 溫補

시키는 방제에 모두 부자를 배오하여 溫腎回陽시켰는데 이것이 엄씨가 補腎을 앞에 두는 관점을 구체적으로 체현한 것이다.

3) 氣道는 通順이 귀중하고 치병에는 調氣를 잘해야 함

엄씨는 “人之氣道貴乎順, 順則津液流通”<sup>199)</sup>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술사상에 입각하여 그는 치병에 특히 理氣調氣를 증시하였다. 예를 들어 中風 치료에서 “若內因七情而得之者, 法當調氣, 不當治風. 外因六淫而得之者, 亦先當調氣, 然後依所感六氣隨證治之, 此良法也”<sup>200)</sup>라 하고, 『八味順氣散』<sup>201)</sup>을 중풍치료의 첫 번째 방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有風之人, 先宜服此, 次進治風藥”<sup>202)</sup>할 것을 타일었다. 痰飲에 대해서도 그는 “順氣爲先, 分導次之, 順則津液流通, 痰飲運下自小便中出”<sup>203)</sup>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氣道閉塞, 水飲停于胸膈, 結而成痰”<sup>204)</sup>하여 “爲喘, 爲咳, 中嘔, 爲泄, 爲眩暈, 心嘈怔忡, 爲悞晷寒熱疼痛, 爲腫滿癰癩, 爲癰閉痞膈”<sup>205)</sup>한다고 하였다.

4) 질병의 辨證施治에 대한 경험

엄씨는 오랫동안의 임상경험을 총결하여 『제생방』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辨證治療에 대해 독창적인 체험과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水腫의 診治에 대해 이 병은 蠱脹과 鑿別해야 한다고 하여 “蠱脹腹滿不腫. 水腫面目四肢俱脹”<sup>206)</sup>이라 하였다. 만일 “治蠱以水藥, 治水以蠱藥, 非其治也”<sup>207)</sup>라 하였다. 水腫의 치

194) 上揭書: 『嘔吐論治』, p.474.

195) 上揭書: 『脾胃虛實論治』, p.511.

196) 上揭書: 『脾胃虛實論治』, p.510.

197) 上揭書: 『自汗論治』, p.491.

198) 上揭書: 『自汗論治』, p.491.

199) 上揭書: 『痰飲論治』, p.476.

200) 上揭書: 『中風論治』, p.466.

201) 上揭書: 『中風論治』, p.466. (白朮、茯苓、靑皮、白芷、陳皮、烏藥、人蔘、甘草로 조성)

202) 上揭書: 『中風論治』, p.466.

203) 上揭書: 『痰飲論治』, p.477.

204) 上揭書: 『痰飲論治』, p.476.

205) 上揭書: 『痰飲論治』, p.476.

206) 上揭書: 『水腫論治』, p.495.

207) 上揭書: 『水腫論治』, p.495.

료에 實脾溫腎을 위주로 하여 陽水인 實證이라도 淸平한 약을 사용해야지 峻劑로 攻逐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赤小豆湯’<sup>208)</sup>으로 “有年少血熱生瘡，變爲腫滿、煩渴、小便少”하는 熱腫證<sup>209)</sup>을 치료하였는데, 이러한 병증은 현대의 학에서 말하는 급성신사구체염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한 ‘赤小豆湯’은 현대 임상에서 급성신염을 치료하는 상용방이기도 하여 엄씨의 의술이 과학적이고 믿을만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는 모두 엄씨가 임상에서 체험하여 얻은 것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현실적인 지도 의의가 있다.

5) 방제와 용약의 공헌

『제생방』은 후세 임상 치료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加味腎氣丸’<sup>210)</sup> ‘歸脾湯’<sup>211)</sup> ‘實脾散’<sup>212)</sup> 등과 같은 방제학의 풍부한 내용은 치료 효능이 뛰어나 후인들에게 널리 채용되었다. 방제와 용약 방면에서 엄씨의 주요한 공헌은 다음과 같다.

① 번잡함을 삭제하고 간편을 추구하여 ‘由搏返約’함으로써 ‘실용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구하여 방서의 편찬 원칙에 있어서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② 單方과 驗方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簡便 廉驗을 추구하였다.

『제생방』은 수많은 단방과 경험방을 수집하고, 민간에 유행하는 유효한 치료 방법을 적지 않게 소개하여 후인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제공하였다. 치병하는 이러한 방약은 극히 간편하여 현재로는 그 유래와 출처를 일일이 고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유전된 單、秘、驗方을 엄씨가 일단 수집하고 정리한 작업은 확실히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臟毒下血을 치료하는 ‘蒜蓮丸’<sup>213)</sup>은 黃連 분말에 大蒜을 구워 절구로 찌어 환을 만들어 복용한다. 腸風瀉血인 下痢의 치료에 椿根皮를 갈아 식초로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 黃連、大蒜、椿根皮는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민간에 광범하게 유전하고 응용한다.

③ 制方の 法度を 중시하고, 藥物의 炮制를 강구하였다. 엄씨가 制方한 것에서 보면 종종 剛한 가운데 柔한 것이 있고, 柔한 가운데 剛한 것이 있어 動靜이 결합되고 陰陽이 상응한다. 예를 들어 ‘歸脾湯’<sup>214)</sup>에 木香을 사용한 것은 補을 시키면서 체하지 않게 하였고, ‘鱉甲地黃湯’<sup>215)</sup>에 肉桂를 사용한 것은 滋하지만 膩하지 않게 하였다. 또한 血症 치료에 止血에만 매이지 않고 溫化祛瘀시키는 약물을 배합하거나, 때로는 姜汁、錦紋、葱汁、乳香을 배오하여 止血하면서 어혈이 남는 폐단을 없애 치법이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엄씨의 제방에는 또한 뚜렷한 특색이 있는데 賦形劑를 잘 이용한 것이다.

엄씨는 制方에 있어서 약물의 포제를 매우 강구하였다. 巴豆와 附子の 응용을 예를 들면 巴豆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가루를 약에 넣는 것 이외에 또한 다른 약을 볶아 그 기름 취하였는데, 이를테면 疝氣를 다스리는 ‘金鈴子散’에 파두를 川練子와 볶아 파두는 버리고 천련자는 사용하였고, 積聚를 다스리는 ‘香椽圓’<sup>216)</sup>에 파두를 莪朮에 볶아 아출은 사용하였고, ‘愈痛散’<sup>217)</sup>에 巴豆肉을 良姜과 함께 볶고 양강을 사용하였다. 附子の 응용에 대해 生用하

208) 上揭書：「水腫論治」, p.495. (赤小豆、當歸、商陸、澤瀉、連翹、赤芍、防己、豬苓、桑皮、澤漆로 조성)

209) 上揭書：「水腫論治」, p.495.

210) 上揭書：「消渴論治」, p.491.

211) 上揭書：「健忘論治」, p.480.

212) 上揭書：「水腫論治」, p.495.

213) 上揭書：「腸風臟毒論治」, p.502.

214) 上揭書：「健忘論治」, p.480.

215) 上揭書：「勞瘵論治」, p.487.

216) 上揭書：「積聚論治」, pp.497~498.

217) 上揭書：「心痛論治」, p.479.

거나 炮用하거나 부자를 去心하여 다른 약물과 함께 써서 사용하거나 혹은 생강즙에 담귀 두고 생강즙을 모두 부자에 흡수시켜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는 엄씨의 용약이 아주 정밀하여 제방의 오묘한 이치를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술을 종합하면 엄씨는 학문적인 태도가 엄격하고 실천을 중시한 의학가로 그가 찬한 『제생방』은 입론이 타당하고 변증이 간명하며 제방이 번잡하지 않다. 옛 것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창조성도 있어 실용적인 입상에 부합한다. 물론 시대적인 한계로 그의 저서 가운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蠱脈을 진단함에 있어 “以鶴皮置病人臥下，勿令病人知 … … 病劇者是蠱，病不劇者非蠱也”<sup>218)</sup>라 하였는데, 현학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 혁혁하게 공헌한 주된 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엄씨와 그의 저작인 『제생방』은 동양의학 발전사에 있어 흘릴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 당대 의약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 III. 結 論

동양의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남송시기의 맥학 측면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송시기에는 溫州의 永嘉지방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였고, 문화적으로도 朱熹의 義理之學을 비판한 事功之學의 사조가 형성되어 이 지방 의학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2. 永嘉지방에서는 陳言이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저작하여 張仲景 『金匱要略』의 三因論을 발휘시켰다. 陳言은 의학의 관건은 삼인을

218) 上掲書：『蠱毒論治』，p.496.

벗어나지 않고 병인을 판별하는 단서는 脈息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病因、脈象을 綱領으로 삼아 方劑學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방서가 易簡한 풍조로 흐르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四脈綱領은 서원맥학의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남송시기는 晉唐 맥학과 明清 맥학을 연결시켜 맥학사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시기로 이를 추동시킨 것은 崔嘉彦의 西原脈學이 중심이 되는 축이 된다. 崔嘉彦은 四脈을 강령으로 삼고 기타 맥상을 결합하여 病因과 病位를 분석하였고, 三部(寸關尺)를 經으로 삼고 4맥(浮沉遲數)、四因(風氣冷熱)을 緯로 삼아 인체 上中下 三焦의 병증을 진찰하였다.
4. 崔嘉彦의 제자 劉開는 心、肝、脾、肺、腎、命門의 순서에 따라 四脈의 主病을 열거한 ‘四時相傳脈’과 三部脈이 太過、不及할 때 所主하는 질병을 소개한 ‘太過不及脈’을 주장하여 최씨의 맥학을 진일보 발전시켰다.
5. 劉開의 제자인 嚴用和는 『濟生方』을 저작하고 劉開의 『脈訣理玄秘要』에 圖說을 붙였고, 맥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임상에서 맥을 판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嚴用和와 함께 劉開의 문하생인 朱宗陽이 있었고, 주씨의 제자로 張道中이 있는데 그는 『玄白子西原正派脈訣』、『玄白子診脈八段錦』、『玄白子相類脈訣』등 맥학전서를 편찬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西原正派’의 기치를 내걸어 崔氏脈學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학파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후 李時珍의 『瀕湖脈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6. 嚴用和는 陳言의 『三因方』과 서원맥학의 영향을 받아 『濟生方』을 저작하여 그의 독특한 학술적인 견해를 전개시켰다. 그는 臟腑辨證

을 중시하고 脈因證治를 상세히 추구하고, 脾胃의 작용을 강조하여 '補脾不如補腎'의 설을 제시하였으며, 氣機의 소통을 중시하였다. 방제에 있어서 '易簡'을 추구하고 '由搏返約'하였고, 單方과 驗方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簡便廉驗을 추구하고, 制方의 法度を 중시하였다.

이상 남송시기의 맥학방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남송시기의 맥학은 '易簡'을 특징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상 어느 시기 보다 수많은 의학관련 저술들이 쏟아져 나와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실용성의 측면에서 정확한 의료지식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한의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VI. 參考文獻

1. 劉均 等 :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影印本, 1964年.
2. 朱 熹 : 『朱文公文集』『四部叢刊本』, 上海商務印書館, 1929年.
3. 嚴世藝 외22人 :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年.
4. 李經緯 외49名 編輯 : 『中國醫學通史』, 人民衛生出版社, 2000年.
5. 劉時覺 : 『永嘉醫派研究』, 中醫古籍出版社, 2000年.
6. 張同君 : 『崔真人脈訣』辨偽, 中醫雜誌 1990, 10期.
7. 張同君 : 『崔嘉彥及其脈學著作的研究』, 浙江中醫雜誌, 1990 8期.
8. 張道中 : 『玄白子西原正派脈訣』, 明抄本(見『脈訣秘旨』).
9. 許洪 編·李升召 編輯 : 『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海南出版社, 2002年.
10. 陳言 著 : 『三因極一病證方論』,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12. 崔嘉彥 : 『脈訣秘旨』明嘉靖戊午抄本.
13. 劉開 : 『劉三点脈訣』, 木刻本(見『醫要集覽』).
14. 劉開 : 『西原正報復眞子劉先生脈法』, 清抄本.
15. 嚴用和 : 『重訂嚴氏濟生方』, 內部發行本, 1979年.
16. 嚴用和 : 『濟生方』『中醫方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年.
17. 岡西爲人 : 『宋以前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年.
18. 嚴三点 : 『脈法捷要』, 明抄本(見『脈訣秘旨』).
19. 成無已 : 『注解傷寒論』, 人民衛生出版社, 1994年.
20. 佚名氏 : 『方脈學要』, 黃魯曾木刻本.
21. 薛己 : 『脈訣刊誤·附錄』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22. 陶宗儀 : 『輟耕錄』『叢書集成』本, 商務印書館, 1935年.
23. 日本 武田科學振興財團 : 『杏雨書屋藏書目錄』, 臨川書店, 1976年.
24. 劉純 : 『醫經小學』『珍本醫書集成』本, 1936年.
25. 李言聞 : 『四言學要』, 影印本『瀕湖脈學』, 北京, 中國書店, 1986年.
26. 李中梓 : 『醫宗必讀』, 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27. 潘輯 : 『醫燈續焰』校點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8. 王道純 : 『本草品匯精要續集』, 附刻于『本草品匯精要』後, 商務印書館, 1957年.
29. 滑壽 : 『診家樞要』, 見『明醫指掌』, 唐鯉飛木刻本.
30. 吳崑 著·郭君雙 主編 : 『脈語』『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31. 戴同父 : 『脈訣刊誤』, 影印本, 北京, 中國書店, 1986年.
32. 吳澄 : 『臨川吳文定公文集』轉引自『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